

● 신문속의 RI뉴스

기가 울산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아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검사(주) (대표이사 조병호) 울산출장소가 24일 오후 6-7시경 울산시 신정동에서 온산공단내 대경테크노스로 작업을 위해 방사선조사기를 운반도중 분실했다고 밝혔다. 서울검사(주) 에 따르면 조사기를 실은 그레이스승합차의 뒷문이 열린 것을 운행중 발견하고 차문을 닫았으나 이때 조사기가 그대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도착후 분실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검사는 이날밤 9시경 과기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분실된 비파괴검사용 조사기는 무게가 약 24kg이며 가로 30cm, 높이 24cm, 폭 13cm로 황색바탕에 분홍색 삼각 방사성표지가 돼있다. 과기부는 이 방사선조사기에는 이리듐 192가 밀봉된 상태로 내장돼 있으며 조사기가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조사기를 파괴할 경우 강력한 방사선이 방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기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부 이현규 원자력국장은 “이 조사기내에는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 이리듐 192가 35큐리 들어있어 분해 또는 파손할 경우 즉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 9월에도 나진검사기술주식회사가 경남 김해에서, 같은해 11월 아이텍이 부산 사하구에서 이리듐 192가 내장된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조사기를 분실한 바 있으며 원자력병원에서도 98년 11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이리듐 192와 세슘 137의 도난사고가 발생했었다. 98년에 세차례 분실 또는 도난됐던 방사성물질들은 모두 회수됐다. <중앙일보 2000/02/25>

울산 방사선조사기 회수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오전 9시15분쯤 울산시 남구 야음 2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李도관(36) 씨가 보관하고 있던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 조사기를 회수했다.

검사 결과 조사기에 저장된 방사성동위원소인 ‘이리듐’ 은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李씨는 “24일 오후 6시쯤 도로 위에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차에 실어 보관했다” 며 “곧바로 조사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25일 오전에 다시 신고했다” 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사기는 24일 오후 6시쯤 비파괴 검사를 하는 (주)서울검사 울산출장소 직원들이 차에 싣고 가다 도로에 떨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부는 이 업체에 영업정지 등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문세(李文世) 박사는 “조사기에 내장된 이리듐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어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0/02/25>

● 신문속의 RI뉴스

지난해 원전이용률 88.2%로 세계 2위

지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88.2%, 원전당 고장정지 건수는 0.9건으로 각각 집계돼 세계 평균치보다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산업자원부가 28일 밝혔다.

원전 운영실적의 대표적 평가지표인 이용률은 가동중인 전체 원전의 실제 가동실적을 설비능력 최대출력으로 나눈 것으로, 이용률이 높을수록 고장정지 및 예방정지 기간이 짧고 발전효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 16기가 가동중인 국내 원전의 이용률은 93년 이후 7년 연속 87%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99년 실적 88.2%는 98년의 90.2%에 이어 사상 두번째 높은 기록이다. 또 세계 평균치인 75.6% 보다 12%포인트 가량 높고 5기 이상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16개국 가운데 벨기에(93.0%)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3위는 독일(87.6%), 4위는 스페인(87.2%), 5위는 스위스(84.7%), 6위는 대만(84.5%), 7위는 미국(84.5%), 8위는 일본(79.4%) 등이었다.

한편 국내 원전의 지난해 고장정지 건수는 총 13건으로 호기당 평균 0.9건 꼴이었으며 94년 이후 호기당 평균 1건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13건의 고장 정지 모두는 원전사고, 고장 등급상 경미한 고장으로 간주되는 0등급으로 판정됐으며 1등급 이상 고장은 1건도 없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경향신문 2000/02/28>

일 닛키, 한전 자회사 KOPEC와 제휴

일본의 국제적 엔지니어링 회사인 닛키(일휘)는 16일 방사성폐기물처리 등 원자력 분야에 서 한국전력공사의 엔지니어링 자회사 한국전력기술(KOPEC)과 제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닛키와 KOPEC은 기술면에서 협력하는 것을 비롯, 한국 내외의 수주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닛키는 또 KOPEC측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감량화, 안전하게 매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측의 직원을 초청해 자사 사업소와 연구시설에서 연수토록 할 계획이다.

닛키는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경수로 공급 프로젝트를 겨냥,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KOPEC과 관계를 깊게 할 계획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닛키측은 관련장치의 공급, 설계협력, 엔지니어링 노하우 제공등을 포함, (대)KOPEC 매상고를 연간 50억엔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신문 2000/02/24>